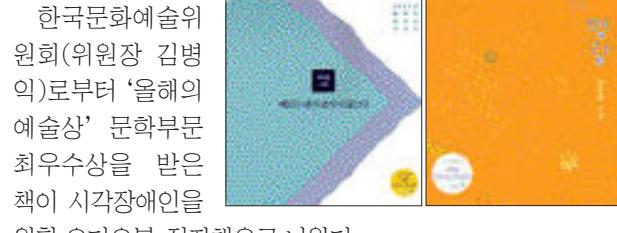


15 광주일보

제17582호 2006년 10월 23일 월요일

최하림 시집 '때로는...' 천운영 소설집 '명랑'

오디오북·점자책 나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병의)로부터 '올해의 예술상' 문학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책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점자책으로 나왔다.

대상은 지난해 수상작 최하림의 시집 '때로는 네가 보이지 않는다'(랜덤ハウス증상 폐념)와 2004년 수상작인 천운영의 소설집 '명랑'(문화과학지성사 폐념)으로, 각각 오디오북 3천부와 점자책 600세트, 400세트가 제작됐다.

오디오북 '때로는 네가 보이지 않는다'(사진 왼쪽)는 일본의 피아노 연주가 유기 구라모토의 음악을 배경으로 최하림 시인을 비롯해 배우 안성기, 가수 유열, 성우 박윤아씨가 시를 낭송한다. 오디오북 '명랑'에는 작가와 함께 성우 전윤경·유경선씨가 참여했다.

점자책은 전국의 점자도서관 185곳에, 오디오북은 점자책 배포처를 포함한 장애인단체, 공공도서관, 교정시설, 군부대 등 1천200여곳에 배포된다. 문의 02-760-4690

장갑수씨 '그 산에 내가 있었네' 출간

산에 오르기 좋은 계절, '친절한' 산 안 내서가 나왔다.

곡성 출신 산행전문 자유기고가 장갑수(49)씨의 '그 산에 내가 있었네'(다자리 폐념)는 진달래산행·절쭉산행·비위산행·계곡산행·강변산행·섬산행·종주산행·단풍산행·여사산행·사찰산행 등 테마별로 끊어 놓은 49편의 글들이 실렸다.

저자는 산에서 만난 자연으로부터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고 공생할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각 티스토리로 지도와 소요시간, 교통편 등을 상세하게 적혀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작품 재탕 논란

대회 대상작·대표작 상당수 '舊作' 출품

"주제·작가선정 불가피한 선택" 반론도

폐막을 20여일 앞둔 2006 광주비엔날레가 때 아닌 '구작(舊作)논란'에 휩싸였다.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비엔날레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이미 다른 비엔날레나 전시회에 출품됐던 '기성작품'들이 비율이 두드러지게 많다는 것이다. 국제 전시관례상 무조건 신작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구작들이 이번 비엔날레의 대표작들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부 국내 작가들의 경우 이미 다른 기회를 통해 발표한 구작들을 내놓았으며, 해외 작가들도 새로운 작업을 내놓는데 인색해 점점 현대미술을 보여준다는 비엔날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개막초기부터 일부 평론가들 사이에 제기됐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미술전문지들이 광주비엔날레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우회적(?)으로 비엔날레의 전시 컨셉과 연출 등에 비판적인 리뷰를 게재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로 본 전시인 '첫장·뿌리를 찾아서: 아시아 이야기 펼치다'와 '마지막 장·길을 찾아서: 세계도시 다시 그리다'의 경우 출품작

98점 가운데 무려 31점이 해외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기존 작품을 빌려온 것들이다. 특히 2006 광주비엔날레 대상작인 '보디 옵풀스케터'(마이를 주·미국)와 '버릴 것 없는'(송동·중국)은 이미 해외 전시에서 공개된 작품으로, 현재까지도 수상의 적합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제작된 '보디 옵풀스케터'는 뉴욕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뮤지엄에서, '버릴 것 없는'은 북경 798팩토리 미술관에서 전시됐던 작품이다.

비엔날레 제단이 이번 대회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자랑하는 황인기씨의 '디지털 산수' 역시 지난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선보였던 작품이며 슈팅의 작품 '백그라운드 스토리' 역시 구작이다.

최병식 경희대 교수(미술평론가는)는 "현대 미술의 신경향과 흐름을 보여주는 비엔날레에서 불가피하게 소수 작가들의 기존 작품이 포함될 수 있지만, 새로운 창작품으로 전시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 전시 관례상 신작과 구작의 비율을 정해놓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례

는 없지만 국제적인 전시에서 참신한 작품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전시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출품작 대부분이 산수, 선과 명상, 불교 등 세계인들에게 익숙한 아시아 소재주의로 일관, 변화하는 아시아 미술의 역동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차적으로 치중되고 있다.

반면 전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기존 작품과 작가를 고르는 전시회의 관행상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미술평론가 정준모씨는 "구작전시는 전시 주제에 충실했던 작가와 그들이 만든 기존 작품을 미리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국내 외 미술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다"고 말했다.

정씨는 "해외 비엔날레에서도 새로운 창작을 요구할 경우 작품 제작에 관한 모든 비용을 주최측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구작들을 종종 조정하기도 한다"며 "중요한 것은 전시의 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표현했느냐 여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인호 광주비엔날레 전시부 장은 "엄밀한 의미의 구작은 작품구조와 배치 모든 면에서 동일했을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주제 위주로 작품을 선정했기 때문에 구작 논란은 적발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06 광주비엔날레 대상작인 마이를 주의 '보디 옵풀스케터(왼쪽)'와 송동의 '버릴 것 없는'. 구작(舊作)인 이 작품들은 현재까지도 수상작으로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진현의 문화카페

광주국제영화제가 살길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PIFF)가 20일 폐막식을 끝으로 9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는 63개국에서 총 245편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월드 프리미어(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영되는 영화)도 역대 최다인 64편에 달해 영화제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아시안 필름마켓'은 국내 영화 15편이 해외에 팔리거나 선(先) 판매돼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제 PIFF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 800억 원을 창출하는 고부가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사실, 창설 당시만 해도 이 '변방의 영화제'가 오늘날 아시아의 대표브랜드로 성장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다. 지난 96년 부산에서 국제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하자 여기저기서 '턱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그것도 지방에서 국제 영화제를 치른다는 것은 어디를 보나 무모해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부산영화제는 이같은 우려를 뒤로 하고 보람답이 창설 10년 만에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거듭나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처럼 부산영화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부산만의' 독특한 컨셉에 있다. 창설 때부터 부산은 유흥을 버렸다. 승산없는(?) 칸, 베를린, 베니스 등 메이저 경쟁영화제와의 전면승부를 피한 대신, 좋은 영화만을 보여주는 비경쟁 카드를 주커들었다. 비경쟁 영화제 중에서도 아시아 영화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전략은 90년대 중반 세계가 '아시아 영화의 재발견'에 주목하면서 기가 막히게 맞아 뛰어졌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제2의 성공요인은 인적 자원이다. 부산영화제가 지금까지 초심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프로그래머 등 초창기 주요 멤버들이 영화제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동호 집행위원장은 초대 수장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부산영화제의 드든한 베�풀목이 되고 있다.

부산영화제의 성공은 여러 모로 광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쟁력 부재로 존폐기로에 선 광주 국제영화제와 '주인 없는' 탓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광주비엔날레에게 전범(典範)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때 비엔날레와 더불어 문화도시 광주의 핵심콘텐츠로 불렸건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신세로 전락한 광주영화제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경쟁력 없는 상품은 퇴출시키는 게 시장의 논리이지만, 때로 리콜을 통해 제기의 기회를 주는 우회전략도 필요하다. 비엔날레를 빼놓고는 국내외에 내놓을 만한 문화자산이 없는 광주로서는 기존의 문화상품을 특화시켜 리메이크하는 전략이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영화제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과 시민들의 관심이 수반돼야 한다. 그리고 그 첫단추는 인권이나 예술을 컨셉으로 한 '광주다움'을 찾는 데 있을 것이다. 무조건(광주영화제를) 퇴출시키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순 없다.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믿고 파십시오

안심하고 사십시오

위탁판매 하십시오

010-8427-9997

(유)홍길동 자동차 매매상사

제작자보다 무조건 더드립니다.

바로 이전 바로 현금 자급

고급 승용·수입차·RV 승용

화물·중기·특장차 '전차종 매입'

1톤 개인용화물, 4.5톤 개별회차 급수

설정·압류차량 매입 바로 이전

전차종 할부판매

차량구입비·이전·보험

무이자 전액할부 판매

돈없이 신용 하나로 구입

당일 출고 5천이내,

3개월 무상 A/S보장

차량금액 원하는 가격받기 원할때

부탁을 할 경우 차량가격에

계약금 10% 고객님에게 지급

1개월 안에 무조건 판매 판매후 이전시류 받음

1개월 안에 안 팔리면 계약금액에 전액배상

계약서 작성시 법인 계약서로 작성

민·형사상 협력 정확히 있음

판매후 수수료 2.2%만 지급

마사이족 워킹슈즈

무릎관절, 요통, 비만

평발, 어깨통증

장시간 서 있거나 많이 걷는 분

국내특허 획득

로얄티 없는 저렴한 가격

탁월한 효능과 내구성

광주대리점 (백운동 국제호텔 옆1층)

Tel.(062)653-7572 / H.P 017-397-7572

정우부동산랜드

010-871-0923 휴 011-607-2213

(전)010-8427-9997

(전)010-8427-9997

한국공인중개사

010-862-7100 (전)010-4325-3210

(동)2지구 앞 험보로 대로변)

장성지역

고장부지, 물류창고

전문중개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는

평수대로 가능

※ 지역관세상 물건 올리지

못한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장매도

장성군 삼계면 4차선집

① 대지-약300평

② 건물-1층 100평

③ 지하1층 50평

④ 창고 100평

⑤ 주차장 100평

⑥ 물류창고 100평

⑦ 물류창고 100평

⑧ 물류창고 100평

⑨ 물류창고 100평

⑩ 물류창고 100평

⑪ 물류창고 100평

⑫ 물류창고 100평

⑬ 물류창고 100평

⑭ 물류창고 100평

⑮ 물류창고 100평

⑯ 물류창고 100평

⑰ 물류창고 100평

⑱ 물류창고 100평

⑲ 물류창고 100평

⑳ 물류창고 100평

</